

島嶼性(Insularity)과 전통성에 바탕을 둔 이상적인 도서지역 주거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Modeling Development of Dwelling House of Islands in the Future Based on the Insularity and the Factor of Traditional Culture

김 지 민*
Kim, Ji-Min

Abstract

This paper is architectural paper which has been studied about residential culture of Southwestern Island from 18C to now. It's main object is suggest a new residential type. Contents of research is 1. to survey a history and a cultural environment of island. 2. to survey and rearrange residence(traditional, modern) which has been built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nd establish a history of residence and a theory. 3. to search for architectural space, shape(form), and architectural community, etc. which can be continued. 4. to suggests ideal future residence type of islands. Effectiveness of Research is 1. This study suggests a new theory and a new method to the field of residential science, especially to the residence of island area. 2. In this study, traditional theory of residence be reflected in the modern architectural design.

Keywords : Island Culture, Insularity, Traditional Housing, Improved Housing

주 요 어 : 도서문화, 도서성, 전통주거, 개량주거

1. 서 론

1. 연구 배경

본 연구는 해마다 많은 도서민이 육지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서민의 正體性(identity)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서만의 역사와 전통성이 갖든 이상적인 주거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 주택분야는 전통과 근대, 현대주택 자체에 대한 공간구성과 양식 등에만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미래의 주거모형 제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최근에 들어 회사, 잡지사 등에서 간간이 이에 대한 작품공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주거문화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시대에 따라 변하는 가치관, 주거관에 대응하는 도시주택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이었을 뿐 지방, 특히 도서지역 주거환경에 관한 관심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미래형 주거모델 개발의 시급성, 그 중에서 연구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도서지역 주거 모델 개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전국도서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서남해 도

서지역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하나는 구체적인 항목의 아이디어 제공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건축적인 이론 및 도면제공이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의 개발이 되는 전체적인 사고개념 및 발전방향의 제시다.

과거 우리의 주거문화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주거문제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과거 우리 문화와 가치관의 지속성을 현재와 미래의 주거환경에 현대적인 관점에서 계승되는 설계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본 과제가 추구하는 최종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도서민의 역사·문화 환경 정체성 확립
- 2)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건립된 주거(전통, 현대)를 체계 적으로 조사·정리하여 주거역사 이론 정립에 근거자료 제공
- 3) 지속 가능한 건축공간, 형태, 도서민이 요구하는 공동관심사(정주성, 주거타입 등) 등을 찾아낸다.
- 4) 도서민의 정주환경을 역학적으로 조사하여 그들의 새로운 주의식 문화를 정립, 새로운 주거유형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연구 (2000-1-31000-005-2) 지원으로 수행 되었음

*정회원, 목포대학교 건설공학부 교수, 공학박사

3. 연구범위

본 연구의 대상도서는 한국 서남해 도서지역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라남도 지역이 된다. 전남지역은 전국 도서 3,125개(유인도: 454, 무인도: 2,671) 중 62.5%인 1,954개(유인도: 265, 무인도: 1,689)가 존재하고 있고, 주민수도 전국 217,444명의 60%인 130,757명이 거주하고 있어 한국의 대표적인 도서지역이 되고 있다¹⁾.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활용한 도서와 조사 가옥수는 <표 1>²⁾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주요도서와 조사 가옥수

행정구역	도서명	조사가옥수	조사년도
全南 新安郡	涯子島, 沙玉島, 會島, 慈恩島, 八禽島, 安佐島, 飛禽島, 都草島, 荷衣島, 長山島, 上苔島, 下苔島, 大黑山島, 押海島	약 320호	1986~2002
全南 珍島郡	珍島, 上鳥島, 下鳥島	약 45호	1986~2002
全南 莞島郡	莞島, 甫吉島, 靑山島, 助藥島, 所安島, 金塘島, 古今島	약 180호	1999~2000
全南 高興郡	外羅老島, 內羅老島, 居金島	약 60호	1993, 2002
慶南 南海郡	昌善島	약 30호	2002

연구대상 가옥의 건립년대는 18C말에서 20C말 정도이다. 즉 전통가옥은 개략 20C초 이전이고, 신축가옥은 20C 후반경이다.

4.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내용

전통성과 도서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도서지역 주택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문에서 다룬 내용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역사 지리학적 문제의 접근이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달리 독특한 역사성과 함께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주거문화와 매우 연관이 있는 분야이다.

둘째, 현재 남아있는 전통주택을 조사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성과 건축적 특성 등 도서 전통민가의 정체성을 살펴본다.

셋째, 새마을 운동이후에 지어진 소위 현대식 주택의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주거모델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등은 무엇인가를 체크한다.

넷째, 위에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의 이상적인 도서주거 유형을 제안한다.

즉, 여러 곳에서 추출된 계획개념과 설계요소들을 새로운 주거모델에 반영해 본다. 그 대상은 안채(본채)이다.

1) 1999 도서현황(행정자치부, 연육도서제외)
2) <표 1>에 나타난 창선도는 2002년에 현지 답사한 섬으로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남에 위치한다. 전남 도서와 비교차원, 그리고 깊이 있는 연구 진행을 위해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안채 이외의 건물(부속채, 창고 등)과 그들의 배치관계 등은 후속연구로 진행할 계획이다.

2) 연구방법

도서지역의 이상적인 미래주거문화 창출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 통계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거금도, 임자도, 조도, 창선도 등 4개 도서를 표본으로 하여 총 291가옥을 2002년에 실시하였다.

II. 島嶼性과 傳統性측면에서 본 도서문화

도서환경은 바다에 의한 고립과 한정된 영토라는 두가지 특성을 지닌 도서성(Insularity)으로 요약되는데, 이러한 두가지 구속력에 대한 도서민들이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양식이 바로 도서문화이다. 따라서 도서지역의 이상적 주거모델 개발의 기반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경제·사회적 여건은 물론 역사 문화적 자원이 모두 포함된다. 즉 서남해 도서지역의 기반에 해당하는 지역의 총체적 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 2. 서남해 도서지역의 역사와 사회구조 변화

16C말	17-18C	1910-45	1970년대	1980년대	1990대
입진란	· 入島祖 (마을재구성)	· 일제강점기	· 새마을 운동시작 · 인구최고	· 전기적극 이용 · 주택개량 (적극적)	· 인구감소 · 가스이용 · 현대식주택

1. 역사와 문화

서남해 도서지역에는 패총, 지식묘 등의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선사유적이 발굴 조사되어³⁾ 아주 예로부터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의 거주유형은 내륙 지방에서와 같은 수혈주거였을 것으로 추정하나 사실은 뒷받침해줄 수 있는 주거지는 아직 발굴 보고된 바가 없다.

고려말기부터 서남해 도서지역은 큰 혼란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즉 이 지역이 갖는 역사적 위치와 경제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왜구의 침탈지로 변하면서 대부분의 섬 주민들은 내륙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東國輿地勝覽」의 전라도 羅州牧條에 의하면 왜구의 침입에 따라 고려말기에 黑山島 사람들이 현재의 영산포 지역으로 집단 이주하여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黑山島 이외에 長山島 民의 羅州 이주, 珍島民의 靈岩 이주 등 서남해 도서진체가 空島상태로까지 가게 되었다. 이러한 空島의 기간이 4~5세대, 150여 년에 걸친 오랜 것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도서지역 문화요소들은 많은 단절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선초기에 들어 왜구의 격퇴와 국가기반이 공고

3) 최성락 (1990), 서남해 도서지방의 先史文化, 도서문화 제 7집, 목포대학 도서문화연구소, 이 논문은 이 지역의 선사유적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다.

해지면서 어느 정도 도서에 대한 주민의 이주가 급속히 전개되었으나 이들은 入島 후 1~2세기도 못되어 임진왜란으로 인해 또 다시 섬을 비우게 되어 다시금 문화의 공백기를 맞게 되었다.

17·18세기에 이주민들은 섬에 집중적으로 유입하였다. 즉 16세기말 전쟁으로 인해 유리된 流移民들이 정착지를 찾아 옮겨다니다가 최종적으로 섬에 유입한 것이다. 섬에 유입한 이주민들은 촌락을 형성하여 정착하게 되는데, 마을의 입지적 조건은 주로 포구, 경작지, 염전, 제방 설치가 가능한 곳이었다. 移住民들의 入島經路를 살펴보면, <南海→西海>로의 유입이 주된 경향이었고, 반대로 <西海→南海>로 유입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이런 현상은 바닷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도서지방의 행정관할지를 설정할 때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도서 이주민들은 海南·靈岩·康津·高興·寶城 등 沿海를 출발지 혹은 경유지로 하여 海路를 따라 섬으로 유입하였다. 이는 入島 前 거주지는 海南이 26%로 가장 많았고, 康津 21%, 高興 15% 순이었다.

2. 자연 환경

서남해 도서는 전부 육지의 침강결과로 생긴 도서로서 지형은 대부분이 300 m 이하의 구릉성 산지를 이루고 있어 평지는 극히 적은 편이다. 즉 평지는 대부분이 해안선 일부에, 또는 해수면 매립지에 발달되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들이 적다는 것이고, 아울러 마을의 발달은 자연히 비탈진 경사지에 이루어지고 있다.

각 도서 주위에는 리아스식 해안을 형성하며 개펄이 넓게 펼쳐져서 경지, 염전, 양식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곳에 따라 (특히 黑山島 등) 해수의 강한 침식으로 암벽이 해안선을 따라 나타나는 곳도 있다.

기후는 한반도의 대부분이 냉대 기후지역에 속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해양성 온대기후권에 속하고 있다. 년 평균기온은 13.5°C, 평균 최고극값은 31.1°C, 평균 최저극값은 -8.38°C이며, 년평균 강수량은 1,175 mm이다. 일조시간은 평균 2.101시간이며 평균 풍속은 4.1 m/s이다. 이중 평균 풍속 4.1 m/s는 전남 내륙지방(구례군)의 2.0 m/s 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결국 바람은 이 지역 민가구조의 큰 환경원인이 된다.

3. 도서민의 定住性 고찰

도서민의 정주성에 대하여는 도서 가구수 규모와 도서의 유형에 따라 정주 및 이주 의사에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즉, 가구수가 많은 도서일수록 정주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도서규모가 적을수록 이주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로 2001년 2월 농업기반공사가 진도 조도면 가사권역 6개 어촌계 계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74.7%가 섬을 떠나고 싶다는 답변이 나왔다. 그중 66.7%가 5년 내에 떠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떠나겠다는 사람의 89.7%가 인근 도서인 목포나 광주로 가겠다고 했다.

이주 의사를 보인 주민들의 이유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건·위생·교통·문화시설의 불편과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손꼽고 있다. 한편 발전 전망이 없어서, 수입이 적어서 떠나고 싶다는 항목은 비교적 낮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데 이로 보아 생활의 편의성과 교육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서개발의 방향설정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문으로는 이러한 불만요인의 해소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동기 부여를 위한 만족요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과거 도서개발이라 하면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 건설, 전기사업,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구축으로만 생각해왔다. 이제는 시각을 달리 할 때가 왔다. 도서만이 갖고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 다양하고 특색 있는 민속문화, 풍부한 수산물 등 여러 자원을 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도서민의 주거도 단순 거주와 휴식기능 외에 문화개념으로 접근할 때가 왔다.

III.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건축 및 문화자원 모색

1. 전통주거 개념 및 특성 이해

1) 주거개념

전통이란 지속성을 지니면서 때론 가변성도 있는 문화유산이다. 변한다는 것은 발전도 한다는 뜻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에서 변화를 거듭하면서 발전, 고착된 목조 초가는 분명 전통성의 명분을 간직한 우리의 주거문화이다. 현재 서남해 도서지역에서는 건립시기가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 무렵까지의 사이에 건립된 민가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옥들을 17세기를 전후한 이주민의 주문화가 섬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새롭게 재구성되면서 발전, 고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입도 당시(17~8세기)의 주거형태에 대하여는 사실을 밝힐만한 현장은 물론 기록도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여러가지 상황(건축재료, 구조기술, 경제력 등)으로 미루어 보아 본 논문에서 제시한 19세기경의 건축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입도전 그들의 전 거주지, 즉 인근 연안의 해남, 강진지역의 주거환경과 비교해도 크게 열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현재 이 지역의 민가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지역 민가에 관여했던 문화인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이러한 요소는 앞으로 계속 논의하게 될 조영규범에 영향력으로 작용한다.

4) 김경옥 (1999), 조선후기 서남해 도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도서정책 연구, 전남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32

- 주거문화의 형성체계 - 입도조의 주거개념 + 도서성 (Insularity)
- 경제, 생계활동 - 전, 답에 의존한 영세농 + 해양생태계에 의존
- 신앙, 의식 - 토속 민간신앙, 가신(성주신 등), 상량, 당제
- 사회관습 - 유교적 사고(장자우위, 제사)
- 마을구조 - 3-4성씨의 집성군집, 집락
- 가족구성 - 대가족 제도(여러세대가 한 가옥에서 공동체 생활)
- 기후 - 해양성 온대기후
- 건축재료, 기술 - 자급자족, 공동체 의식

한편 주거문화와 직접 관련된 것 중 특히 눈에 띄는 사항은 육지에서 보기 드문 상량문이 있는 가옥이 많은 사실이다. 상량문이 있어 민가 연구시 늘 의문시되는 건립년도 추정에 우선 신뢰감을 준다. 이는 도서민가연구의 이론적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이다. 상량문은 “道光”(1821~1850), “咸豊”(1851~1861), “同治”(1862~1874)등의 중국 연호를 주로 사용하였고 이보다 연대가 빠른 “嘉慶”(1796~1820)이란 연호를 사용한 가옥도 있다.

2) 주거의 기본구성

일반적으로 서민이 사는 민가에 있어서는 상류주택과 달리 가족구성의 동질성, 경제 및 사회활동의 단순, 건축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부속채의 구성이 다양하지 못하다. 기껏해야 별도로 행랑채와 측간채, 가축사 정도가 고작이다. 행랑채의 경우 지방에 따라 호칭(사랑채, 아래채, 부속채, 작은채, 바깥채)과 기능(작업+수장, 거주+수장+작업, 거주+수장+가축사육)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건축의 본질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 지역 민가의 대지 성격은 안마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안채와 함께 그 중심에 위치하며 그 성격은 매우 개방적이다. 또한 안마당은 부속채나 출입구, 가축사 등의 위치를 결정하게도 한다. 이외 외부공간 구성은 안채 뒷편으로 협소한 공간과 대지 측면에 뒷밭이 일구어지는 것이 거의 전부다. 즉 가능한 대지의 후면(안쪽)으로 안채를 앉혀 그 전면으로 마당을 넓게 조성하려고 노력하였다. 행랑채가 들어섰을 경우도 반드시 안채 전면에서 안마당 중심의 배치관계로 이끌어 나갔다. 안채 전면에서 문간채 겸 부속채가 들어서는 ‘二자형’ 배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一자형’ 배치개념은 전남 도서지방 민가 배치의 기본유형으로서 좁은 대지를 개방적 측면으로 유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지역 민가에서 안채 다음으로 제2의 건물은 행랑채이다. 독립된 별동으로 건립되는 이 건물은 안채처럼 반드시 건립되지는 않고 보통 안채 건립이후 가족수가 늘어나고 살림의 규모가 커질 때 지어진다. 따라서 가옥의 경제적 역량과 관계를 가진다. 호칭은 도서에 따라 행랑

채, 사랑채 등으로 불리며 기능은 앞에서 언급한 수장과 거주, 가축 사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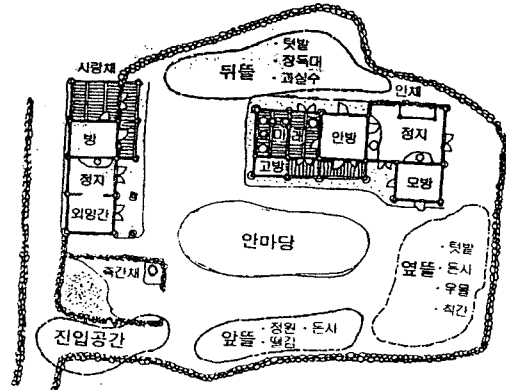


그림 1. 가옥의 기본구성 사례(하의도 대리마을)

3) 평면구성체계

서남해 도서지역 민가의 평면구조를 실구성 중심으로 유형화 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 유형 모두는 ‘一자형’ 홑집계통으로 모두가 전면에서 퇴가 있는 개방형 구조로 되어있다.

(1) 제I형(정지+안방+마래)

정지, 큰방, 마래가 나란히 모여지는 유형이다. 보통 큰방과 마래 전면에서 뒷마루가 시설되나 다소 규모가 작은 가옥에서는 흙바닥(토방)으로 처리된 경우도 있다.

<그림 2>의 가옥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가옥은 1797년에 건립된 가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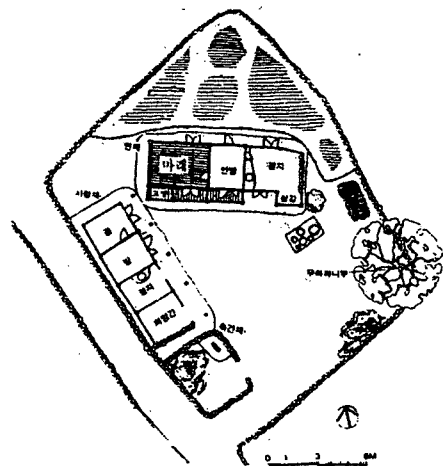


그림 2. 하의도 대리 박씨가옥 배치도 (필자 실측, 1989)

(2) 제II형(모방+정지+안방+마래)

마래, 안방, 정지, 모방의 4실로 이루어진 <그림 3>의 가옥과 같은 유형이다. 이 경우 모방(간혹 지역에 따라 ‘작은방’이라고도 부름)이 전면에서 퇴주선보다 약 1m 정도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어 ‘一자’형 평면이지만 ‘一자’형을 연상케한다. 안방, 정지, 모방이 유기적으로 잘 조

합(집중)되어 있고 서로의 동선도 짧다. 서남해 도서지역 중에서 특히 서해쪽인 신안군 지역에 이러한 유형이 특히 많이 보인다. 이러한 유형은 서남해 도서지방의 민가 평면형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패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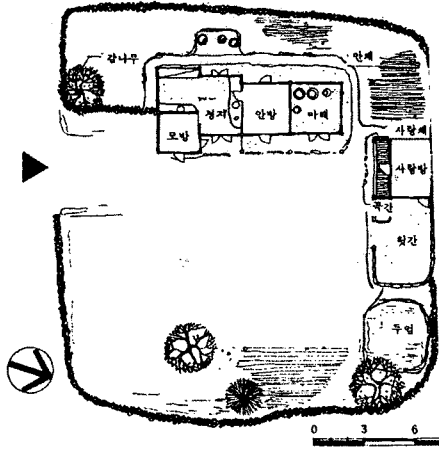


그림 3. 삼태도 삼태동리 김씨가옥 배치도 (필자실측, 1989)

많이 찾아 볼 수 있으며 기타 신안군 지역 도서에서는 간혹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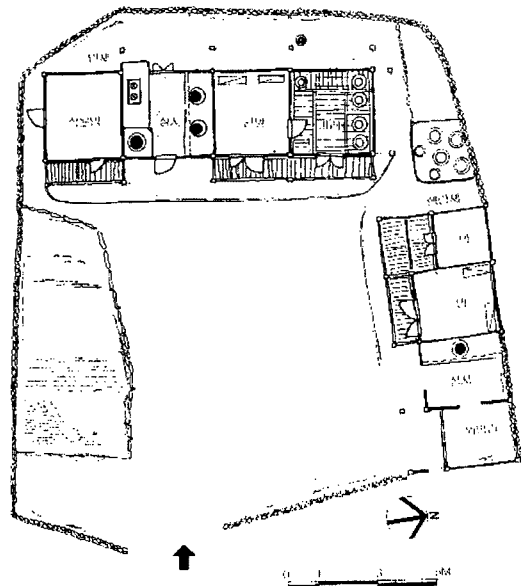


그림 5. 청산도 당리 최씨가옥 배치도 (필자실측, 1989)

(3) 제III형(마래+안방+정지+모방+갯방+외양간)

제II형 형식에 정지와 모방 측면으로 외양간(헛간)과 갯방이 겹집형식으로 추가되어 실이 4실에서 6실로 늘어나는 형식이다. 간혹 외양간이 전면에 오기도 한다. 마래의 경우는 칸 수로 보면 2칸이고, 방도 행랑채에 있는 것까지 하면 4개나 된다. 즉 비교적 경제 규모가 큰 중농가 일수록 이러한 유형이 많이 나타난다.

(5) 제V형(작은방+마래+안방+정지)

이 유형은 전남의 남해안에서 동쪽, 즉 여수반도와 그 주변도서에서 많이 보이는 유형이다. 때로는 고흥반도 및 그 주변에서도 보인다.

이 지역은 4칸형의 경우 작은방이 정지 측면에 오지 않고 마래옆으로 오는 “작은방+마래+큰방+정지”식으로 조합되는 유형이 등장한다. 즉 다른 지역과 작은방의 위치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동쪽(경상도지역)으로 갈수록 이러한 유형은 거의 표준형으로 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마래’라는 호칭 대신 ‘안침’으로 부르고 있다. 즉 안쪽에 있는 침(마루)이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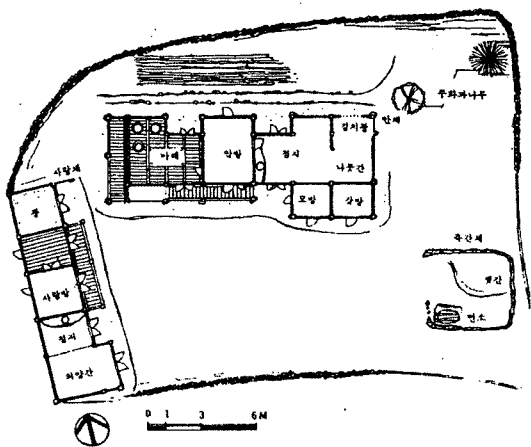


그림 4. 안좌도 대리 정씨가옥 배치도 (필자실측, 1989)

(4) 제IV형(모방+정지+안방+마래)

모방(작은방)을 정지 전면에 두지 않고 완전히 측면에 배치한 역시 4실 구조의 ‘-자’형 형식이다. 제II형의 가옥과 달리 모방의 독립성이 강하다. 출입도 전면의 뒷마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형은 주로 흑산도 지역과 청산·보길도 등 남해상의 가옥(완도군 지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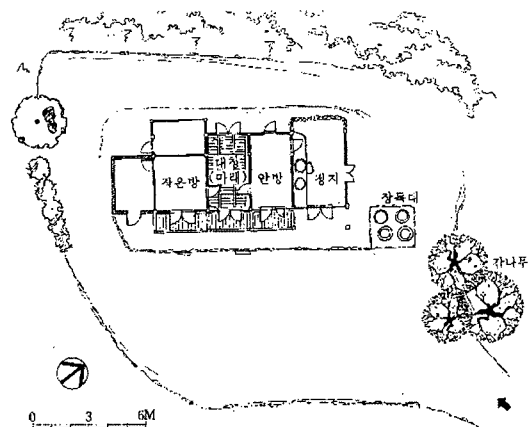


그림 6. 고흥군 포두면 정씨가옥 배치도 (필자실측, 1991)

4) 지속가능한 건축공간 모색

전통요소를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현대건축에 도입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전통은 연속성이 있는 새로운 문화인자로 인식할 때 특히 주거건축에서는 개발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전통주거의 마래와 마당, 그리고 뒷공간을 사례로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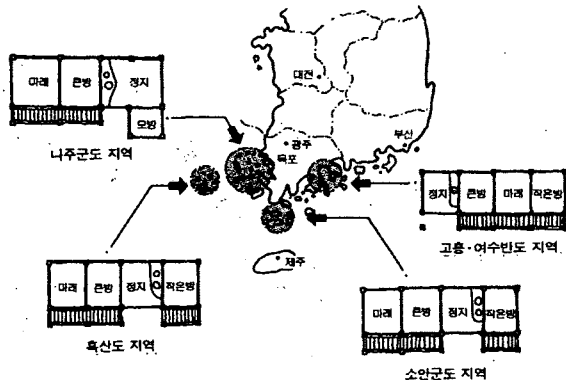


그림 7. 서남해 도서지역 민가 기본형

(1) 마래

“마래”, “마리”, “말래”등으로 호칭되는 이 실은 서남해 도서지역의 핵심이 되는 도서민의 생명력과 응집력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마래는 항상 머리쪽에 위치한다. 그 위쪽으로는 어떠한 실도 들어서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전남의 서남해(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등) 도서에서 모두 같다.

이 실의 용도는 외형적으로 수장의 기능을 갖는다. 수장 형태는 1년 알곡식이 크고 작은 독에 담겨져 큰 독은 아래로, 작은 독은 그 위로하여 벽선에 따라 놓여진다.(하의도 대리마을 어느 가옥의 큰 독은 중앙부 직경이 70 cm 높이가 99 cm이다.) 이외 각종 집안 살림 도구(바구니, 상, 돛자리, 그릇 등)도 보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래는 한 가정의 정신적 지주공간 역할도 하고 있다. 즉 보통 3대조까지의 신위를 모셔두고 제례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신위는 정면 출입구 맞은편 벽 상부에 감실장을 만들어 설치하기도 하고 감실장 없이 “독”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무상자를 선반에 올려놓은 경우도 있다. 이는 사당을 별도로 건립할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형편에서 마래방을 제사공간으로 지혜롭게 활용한 것이다.

결국 마래는 제사와 수장을 동시에 수용한 전통공간으로서 충분히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여겨진다.

(2) 마당

민가의 건축적 구성요소는 단순히 안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안채는 저장과 거주, 그리고 종교적 사고까지 수용하고 있는 제일 비중이 큰 대상이다. 그러나 부속채나 마당 등도 한 가옥의 틀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인자가 아닐 수 없다.

도서지역 민가에서 마당은 내부공간 만큼 중요하다. 가족의 대소 행사장으로, 농수산물의 정리 및 건조, 또는 가족 휴식 공간으로서 그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물론 이러한 기능은 내륙 농촌지역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의식 조사시에도 보면 넓은 마당을 갖기를 앞으로의 신축주거에서도 원하고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마당은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여겨진다.

(3) ‘퇴’공간

건축에서 퇴칸은 몸채 앞 뒤, 또는 좌우에 본래 칸보다 좁게 달린 칸을 말한다. 이 퇴칸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매개하는 중간적 성격의 공간으로 반내부적이면서도 반외부적인 성격을 갖는다. 매개공간은 단순히 공간의 이웃함에 따른 시각적 연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 측면에서의 뒤엉킴에 의해 유기적인 연계를 이룰 수 있다.

내륙과 마찬가지로 도서민가에서도 이 퇴공간은 마루가 놓여지는 전면의 ‘뒷마루’로 크게 조명된다. 앞 뒤, 좌우의 비어진 퇴에는 특히 외부에서 필요한 각종 생활도구가 손쉽게 놓여진다. 가옥에서 여유를 찾아볼 수 있는 퇴공간은 충분히 현대주거에서도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여겨진다.

2. 근대화 이후의 신축주거 개념 및 특성이해

1) 새로운 주거문화의 유입

서남해 도서지역 민가는 개략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함께 전통의 모습을 크게 벗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변화에 반응이 없었던 도서 민가에 충격에 가까울 정도의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었던 것이다. 실로 움집생활에서 벗어나 주춧돌 위에 기둥을 반듯이 세우고 집을 짓고 생활했던 당시의 변화 이상으로 큰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시기의 민가들은 우선 외관상으로 지붕개량이 이루어져 초가에서 함석이나 스테이트로 개량이 되고 이와 함께 낡은 부채(기둥, 서까래 등)가 부분적으로 교체되고 창호 등도 개수된다. 아울러 창고 신축, 담장보수, 마을길 포장 등 집과 마을 전체가 오랜 전통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내륙지방 보다는 그 문화의 교대가 쉽지 않아 기간이 오래 걸렸고 고가를 헐고 새로 짓는 신축의 경우는 1980년대에나 들어서 몇몇 가옥에서 시작되었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 많은 마을에서 주택신축이나 개량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도로포장, 전기나 가스의 적극적 이용, 주거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신축의 동기는 ① 옛집의 노후로 더 이상의 개수 불가능 ② 주생활의 개선 ③ 가족구성의 변화, 즉 노부모만 거처하므로 옛집의 경우 유지관리가 어렵고 편익성을 추구할 수가 없었다.

1980년대 이후 기존의 목조주택을 개량하거나 아니면 새

로운 형태로 신축한 주거문화는 분명 새로운 시도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 주거문화(Host Culture)가 자리를 내주고 오히려 새로운 유입문화(Migrant Culture)가 자리를 차지한 셈이 되었다. 사실 그 내용은 다른 사회변화와 함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큰 충격이 없었을지 모르나 건축의 구조 측면에서는 실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과거 전통가옥에서 있었던 협동심 등 주민화가 갖는 마을의 공동체 의식도 사라지게 되었다.

2) 주거형태 및 특성

근래에 들어 서남해 도서지역에 지어지는 주거형태는 20세기말에 시도된 이시대 사회문화 요소의 새로운 산물임에 틀림없다. 과거 전통주거와 비교해 볼때 형태는 물론 내부공간의 기능과 구성까지도 충격적이다.

UKBRLR 신축주거의 공통된 특징은 대부분 장방형 평면에 구조는 조적조 평지붕(슬라브)형태로 되어 있다. 내부 평면구성은 거실(L)을 중앙에 두고 그 좌우로 안방(R₁)과 작은방(R₂), 그리고 부엌(K)과 화장실(B)은 보통 뒤쪽에 두고 있다. 즉 <그림 8>과 같은 타입으로 중앙의 거실을 통해 모든 실로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도서별 차이가 거의 없고 다만 전면 방 하나가 앞쪽으로 약간 돌출되는 타입이 다소 있을 뿐이다. A, B 두 형식 중에서 부엌이 모퉁이로 가는 A형식이 B형보다 비교적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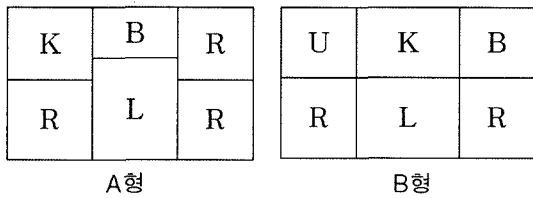


그림 8. 신축주거 평면 유형

화장실과 부엌이 하나의 공간내에 엮어지는 이러한 모습은 조선시대 이후까지 줄곧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주 문화에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거실은 홀형식으로 꾸며져 있어 독립성이 매우 약하고 전통주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마래(안광)는 다용도실이란 명칭으로 기능이 많이 축소되거나 달라진 채 부엌 한쪽편에 배치되어 있다.

구조는 벽돌 내지 블록으로 쌓는 조적식구조이며 외부 마감은 타일이나 치장벽돌 또는 몰탈위에 수성페인트로 마감하였다. 지붕은 대부분 공사에 편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슬라브 지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한편으로 곡물이나 빨래건조를 할 수 있는 잇점을 가지고 있다.

3) 도서민의 주환경 인식변화 고찰

과거나 현재 모두 바다는 귀중한 자원의 보고이고 아울러 열려있는 교통로이다. 그러나 바다에 둘러쌓인 육지, 이른바 섬은 문화의 교대가 육지보다는 느렸고, 특히 주거분야에서는 해방이후가 더욱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70년대부터 ① 도서지방에 전기와 전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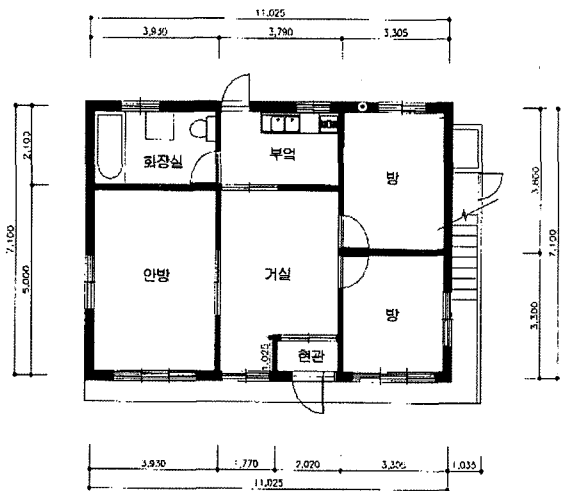


그림 9. 신축가옥사례 1, (진도군 조도 산행마을, 1991년 건립) (필자실측,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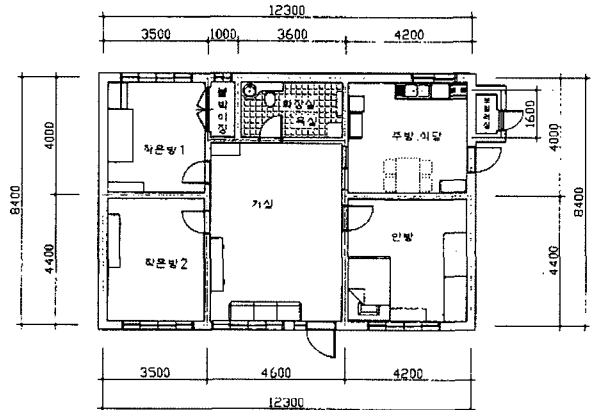


그림 10. 신축가옥사례 2, (신안군 압해도 학교마을, 1995년 건립) (필자실측, 2000)

보급되고, ② 80년대 초부터 많은 도서민이 육지(목포, 광주, 부산, 서울 등)로 옮겨 가면서 육지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옮겨 놓았고, ③ 특히, 최근의 TV 등 영상매체의 보급으로 쉽게 도서지역에도 변화의 바람을 맞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배경으로 주거환경도 80년대부터 바뀌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도서민의 주환경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요인은 바로 인구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두 요인은 매우 상호적이다. 인구감소에 대하여는 90년대에 새로 지은 신축주택 가정이나 과거 전통주택 가정이나 그 비율은 비슷하다.

도서민의 주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4개섬을 표본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⁵⁾.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도서에 새 주택을 건립할 때 어떤 규모와 형태, 그리고 어떻게 내부와 외부공간이 꾸며져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1차 지표가 된다. 보편적으로 도서주민

5) 2002년에 거금도, 조도, 임자도, 창선도를 대상으로 총 291가옥을 조사하였다.

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 전원주택 형식, 단층
- 방 1개는 크게(집안 행사시, 겨울철에 난방비 문제로 거실기능 대처)
- 넓은 부엌
- 넓은 마당이 필요
- 건물에 작업공간이 필요
- 넓은 수납공간(다용도실 개념) 필요

(1) 건축규모 및 구조일반

① 건물구성(동수)

전통주거에서 아주 영세가정을 제외하고는 보통 건물구성은 안채(본채)와 부속채(행랑채 등) 1채 등으로 꾸며진다. 부속채의 기능은 특히 농경중심의 시대에 그 필요성이 매우 큰 건물이었다. 그러나 근래에 새로 신축되는 가옥의 경우 부속채가 아예 없는 경우도 나타난다. 3개의 섬에서 1채(본채)만을 지향하는 가옥이 오히려 압도적으로 많다. 도서지방에서도 이제 가옥의 개념이 작업과 저장 등에서 단순히 거주개념으로, 또는 1채에서 모든 기능을 다 소화하려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건물면적

본체의 건축면적은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30평형을 주로 원했다. 이 규모는 최근에 지어진 신축주거의 면적인 20평형대 보다 늘어난 규모이다. 한편 경남의 창선도 경우는 20평형을 조사가옥의 반 정도가 원했다. 또한 건물구성도 2채로서 전남지역 도서와 차이를 보인다.

③ 방 개수

모든 도서에서 방이 3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즉 큰방 1개(부부사용)와 작은방 2개이다. 방을 4개나 원한 가옥도 비교적 많다. 가족수가 과거보다 급격히 줄어 부부만 거처하는 가정에서도 방 3개는 거의 필수 조건이었다. 이유는 평소에 비워 두더라도 외지에 나갔던 가족이 모임 경우(명절, 집안 큰 행사 등) 침실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특히 노부부 가정일수록 그러한 주거개념이 더 컸었다. 즉 가옥을 단순히 거주기능 보다도 가족관계의 설정을 더 중요시 하는 걸로 나타났다.

④ 건물구조와 형태

건물을 벽돌조로 원하는 가정이 평균 70% 정도이다. 목조집을 원하는 곳은 5% 정도로 극히 적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식 주택은 재료가 벽돌 내지는 철근콘크리트라는 인식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철근 콘크리트조는 철근과 레미콘의 반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도서지방에서는 그러한 구조는 주택에 채택하기는 매우 어렵다. 과거 목구조만을 채택했던 시기와 큰 차이를 보인다.

지붕모양은 단순 평슬라브 지붕을 원했다. 경사지붕 등은 시공상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등으로 회피했다. 한편 평지붕의 경우 마당을 대신하여 농산물 건조 등도 할 수 있는 잇점도 노린 가옥도 있다. 이러한 답변은 전원주택, 모양 좋은 집 등을 바라는 보편적인 생각과는 상충된다.

(2) 본체의 실 구성 및 배치

다음은 본채(20~30평형)에서 어떤 실을, 그리고 어디에 놓았으면 하는 상당히 실질적인 문제를 다룬 조사이다.

① 화장실, 세탁실

화장실은 본체에 두기를 50%정도가 원했다. 또한 본채에도 두고 외부, 즉 별도나 부속채에 또 하나의 화장실을 갖기를 원하는 가정도 37%나 됐다. 외부의 경우는 외부에서 작업 등의 시간이 많다는 경우다. 결국 화장실은 본체에 있어야 한다는 도시의 주거문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

세탁실은 안채와 화장실에 두어야 한다는 응답도 상당수 도서에서 나왔다. 아마 물을 사용하는 설비관계 등에서 발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필자가 현지 조사한 바로는 이 경우 화장실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돼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진다는 것을 알았다. 도서에 따라 세탁실을 부속 건물에, 또는 본체의 다용도실에 두어야 한다는 조사도 나왔다.

② 주방과 식당

주방과 식당은 대부분 도서에서 하나의 공간에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실제 면담에서 느낀점은 도서민 대부분이 도시의 아파트(중·소형)타입을 생각했다. 그러나 음식냄새와 시선 등을 고려하여 거실내지는 홀 등과 문을 설치하기를 원하는 가정도 있다.

③ 마래

마래는 과거 전통주택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중요공간이었다. 곡식을 보관하고 아울러 제례공간으로서 그 기능은 매우 중요하였다. 그림11에서 보듯이 조약도 해동마을 신축주거의 경우 이 공간을 마련하였다. 금번 조사에서는 거금도 25%, 조도 40%, 임자도 19%, 창선도 60% 정도의 가옥에서 마래 설치를 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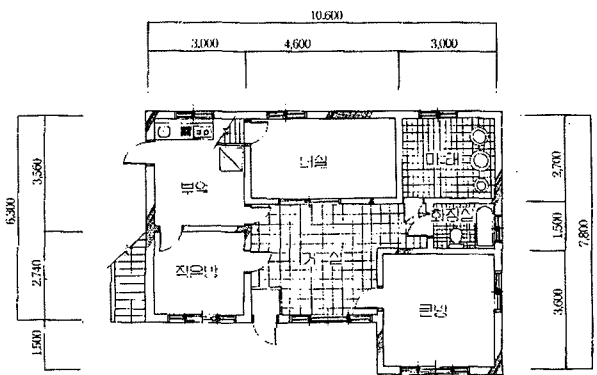


그림 11. 조약도 해동마을 신축주거 평면도, 1986년 건립 (필자실측, 1994)

④ 대청, 툇마루

대청은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실이 바로 대청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사실 과거에도 도서지방 민가에서 순수한 대청기능을 갖춘 공간은 거의 없었다.

과거 전통주택에서 필수적으로 설치했던 툇마루에 대

하여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또는 응답이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식 주거에서 어떻게 툃마루가 등장할 수 있는지는 의구심도 컸었다. 필자가 현지에서 느낀 점은 거실이 대청과 툃마루 등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을 받았다.

⑤ 참고, 작업실

참고(순수한 마래의 기능보다도 복합적인 기능)는 도서민 대부분이 별도의 건물에 두기를 원했으나 16% 정도는 그래도 안채에 있었으면 했다. 작업실은 창고 건물과 함께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건물을 갖기를 원했다. 한편 무응답도 많은 편인데 이는 미래의 삶에 작업의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성격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IV. 주거모델 개발 연구

1. 개념 추출 전제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도서지방에 새로운 살림집을 지을 때 어떤 유형의 집을 짓는 것이 이상적일까에 대한 건축적 답을 얻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주거는 아주 지극히 경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현재 지어지고 있는 집 보다 다소 합리적이고 편리한 집이다. 그러한 새로운 집은 도서성과 전통성 등 지역성을 우선 고려한 집이다.

시대환경은 계속 변한다. 수년전부터 서남해 도서에는 각 도서간 다리가 놓여지고 있다. 이미 비금-도초도간, 안좌-팔금도간 공사가 끝났고 목포-압해도 간 등 여러 곳에서 계속 공사가 한창이다. 앞으로 머지않아 모든 주요 도서가 연륙되어 더 이상 도서의 개념에서 벗어날 날도 멀지 않다. 그렇다면 미래에 현재의 도서에서 내륙과 다른 어떤 특성을 찾아 볼 수 있을까. 이러한 가정도 본 연구의 진행에 있어 염두에 두었다.

제 4장의 내용은 지극히 연구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어찌면 Design(설계)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즉 건축적인 답은 도면이고 도면 작성은 바로 설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설계의 개념 추출은

첫째, 필자가 약 15년 전부터 연구해온 도서지방의 전통민가와 마을(제3장 연구 근거)

둘째, 최근 2년간 현장답사를 통해 얻은 주거 실태조사와 주민들과의 현장 인터뷰 결과(제3장 연구 근거)

셋째, 필자의 주택설계 경험.

이상의 것들을 종합화하여 설계에 적용하였다.

2. 단위건물 평면타입 설계

1) 설계개념 item설정

- 건물은 1층을 원칙으로 하고 그 면적은 실평수 30평을 넘지 않도록 한다.
- 본체에 거실, 주방과 식당, 화장실, 다용도실 등을 기본으로 갖추고 침실(방)은 2개 내지는 3개로 한정한다. 작업실과 창고 등은 부속체에 두나 본체만이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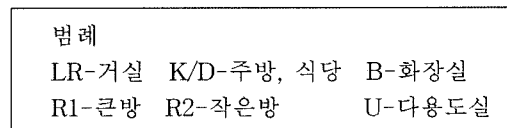
립될 경우는 본체 내에 그러한 공간을 배려한다. 기타 전통공간인 마래나 툃마루 등은 현대식 구조개념으로 변형한다.

- 다음과 같은 A(72m²), B(108m²), C(135m²), 3개의 모듈타입을 설정, 규모를 정하고 그 안에서 각각 3가지 평면타입을 설계한다. 각 타입의 규모는 <표 3> 등에 근거, 설계상으로 산출한 것이다.(서비스 공간 포함)
- 모듈화의 기본치수는 3,000×3,000이다. 이 치수는 ±10%의 가변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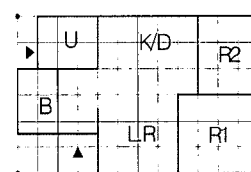


A 타입 (12,000×6,000) B 타입 (12,000×9,000) C 타입 (15,000×9,000)

2) 단위건물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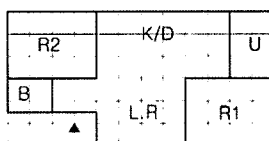


• A-I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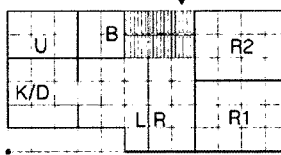
- 코너 진입(퇴간)
- 정지방 개념의 R2, 정지 공간으로 사용 가능(부부 거쳐시)
- W, C-문간에 설치(외부출입가능)
- 식당, 거실-일체형(공간 극대화)

• A-II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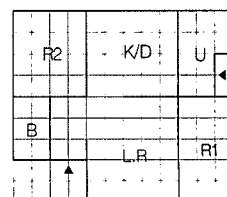
- 코너 진입, 출입구 퇴간
- R1, R2 완전 독립
- W, C-문간
- 식당, 거실-일체형(공간 극대화)
- 넓은 다용도실(내·외부출입)

• A-III형



- 전면에 부엌(밖다)
- 넓은 방 둘
- 거실과 연계된 대청 설치
- 전면 출입 포치

• B-I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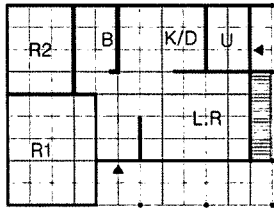
- 코너출입, 툃마루
- W, C-문간에 설치(외부출입가능)
- 침실-완전 독립
- 넓은 다용도실과 부엌

표 3. 주거환경 인식조사

항 목		도 서 명 (조사가구수)	거금도 (55)	임차도 (31)	조도 (138)	창선도 (67)	계 (291)
건물수	안채		25(45.5)	20(64.5)	25(18.1)	25(37.3)	95(32.6)
	안채+부속채1		11(20)	5(16.1)	12(8.7)	33(49.3)	61(21)
	안채+부속채2		1(1.8)	1(3.2)	1(0.7)	-(-0)	3(1)
	미조사무응답		18(32.7)	5(16.1)	37(26.8)	9(13.4)	69(23.7)
침실수	1개		-(-0)	-(-0)	4(2.9)	2(3)	6(2.1)
	2개		6(10.9)	2(6.5)	8(5.8)	-(-0)	16(5.5)
	3개		26(42.3)	16(51.6)	39(28.3)	48(71.6)	129(44.3)
	4개이상		5(9.1)	8(25.8)	10(7.2)	11(16.4)	34(11.7)
	미조사무응답		18(32.7)	5(16.1)	77(55.8)	6(9)	106(36.4)
화장실 위치	안채		15(27.3)	9(29)	53(38.4)	28(41.8)	105(36.1)
	부속채		-(-0)	-(-0)	4(2.9)	2(3)	6(2.1)
	안채+부속채		22(40)	17(54.8)	8(5.8)	31(46.3)	78(26.8)
	미조사무응답		18(32.7)	5(16.1)	73(52.9)	6(9)	102(35.1)
세탁실 위치	화장실		10(1.8)	6(19.4)	42(30.4)	17(25.4)	75(25.8)
	안채		12(21.8)	2(6.5)	5(3.6)	15(22.4)	34(11.7)
	부속채		14(25.5)	18(58.1)	18(13)	28(41.8)	78(26.8)
	기타		-(-0)	-(-0)	1(0.7)	1(1.5)	2(0.7)
	미조사무응답		19(35.5)	5(16.1)	72(52.2)	6(9)	102(35.1)
주방/식당	분리		6(10.9)	4(12.9)	11(8)	7(10.4)	28(9.6)
	통합		31(56.4)	22(71)	56(40.6)	54(80.6)	163(56)
	미조사무응답		18(32.7)	5(16.1)	71(51.4)	6(9)	100(34.4)
마래 설치	필요		15(27.3)	4(12.9)	11(8)	23(34.3)	53(18.2)
	불필요		22(40)	21(67.7)	29(21)	24(35.8)	96(33)
	미조사무응답		18(32.7)	6(19.4)	98(71)	20(29.9)	142(48.8)
틔마루 설치	필요		5(9.1)	3(9.7)	5(3.6)	8(11.9)	21(7.2)
	불필요		28(50.9)	23(74.2)	6(4.3)	29(43.3)	86(29.6)
	미조사무응답		25(45.5)	5(16.1)	127(92)	30(44.8)	187(64.3)
창고 위치	안채		5(9.1)	-(-0)	19(13.8)	9(13.4)	33(11.3)
	부속채		6(10.9)	-(-0)	8(5.8)	1(1.5)	15(5.2)
	독립		24(43.6)	23(74.2)	33(23.9)	44(65.7)	124(42.6)
	불필요		1(1.8)	3(9.7)	-(-0)	3(4.5)	7(2.4)
	기타		1(1.8)	3(9.7)	1(0.7)	-(-0)	5(1.7)
	미조사무응답		18(32.7)	5(16.1)	77(55.8)	10(14.9)	110(37.8)
지붕 형태	슬라브		29(52.7)	25(80.6)	39(28.3)	47(70.1)	140(48.1)
	경사지붕		4(7.3)	1(3.2)	2(1.4)	10(14.9)	17(5.8)
	기타		-(-0)	-(-0)	2(1.4)	-(-0)	2(0.7)
	미조사무응답		22(40)	5(16.1)	95(68.8)	10(14.9)	132(45.4)
지붕 재료	슬레이트		8(14.5)	-(-0)	-(-0)	3(4.5)	11(3.8)
	합석		1(1.8)	-(-0)	-(-0)	-(-0)	1(0.3)
	기와		2(3.6)	-(-0)	-(-0)	8(11.9)	10(3.4)
	기타		-(-0)	1(3.2)	1(0.7)	1(1.5)	3(1)
	미조사무응답		44(80)	30(96.8)	137(99.3)	55(82.1)	266(91.4)
외부벽 마감	붉은벽돌		-(-0)	-(-0)	38(27.5)	27(40.3)	65(22.3)
	타일		-(-0)	-(-0)	3(2.2)	2(3)	5(1.7)
	목재		-(-0)	-(-0)	2(1.4)	2(3)	4(1.4)
	기타		-(-0)	-(-0)	1(0.7)	2(3)	3(1)
	미조사무응답		55(100)	31(100)	94(68.1)	34(50.7)	214(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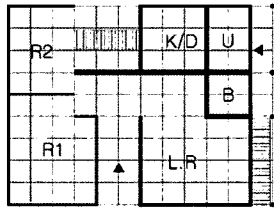
* () - %

• B-II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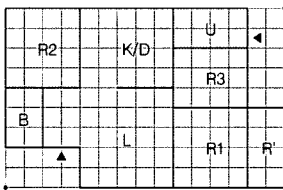
- 전면 넓은 뒷간 (이동 평 상 또는 의자, 휴식, 임시 수장 및 건조 등)
- 외부에서의 다용도실-부엌 연결 동선
- 거실 측면 뒷마루

• B-III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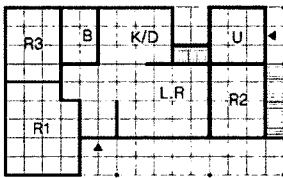
- 후청(마루)이 있어 부엌 과 현관이 밝은 집
- 편리하게 마당에서 다용도실과 화장실 연결
- 측면에 퇴간(뒷마루) 설치

• C-I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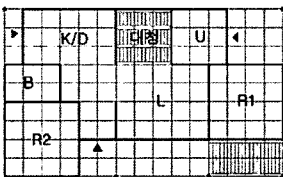
- 넓은 출입 포치
- 넓은 측면, 서비스 공간 → 다용도실 → 부엌
- '마래' 개념의 R3
- R1의 가변성 공간설치 (R')

• C-II형



- 넓은 전면 퇴간 (휴식 및 임시수장)
- 거실, 다용도실, 부엌이 연결된 편리한 동선
- 밝은 거실과 주방/식당
- 측면 뒷마루

• C-III형



- 본체내 작업공간 (우측후면)
- 대청설치-현대식 거실과 연계
- 대청과 고방, 대청과 부엌의 유기성
- 전면 퇴간의 토방과 뒷 마루개념 동시도입
- 화장실 내·외부출입

3. 구조 및 형태 제한

집의 외형은 집을 평가 할 때 우선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구조나 재료의 선택, 형태 디자인 등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디자인 문제는 전문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은 사실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다.

과거 전통민가의 경우 재료선택의 단순(나무, 흙, 짚 등)으로 그 외형은 거의 한 타입으로 단순화되어 있었다. 즉 둥근 인상의 커다란 초가지붕이 우선 시각적으로 크게 들어오고 그 하부는 수직 나무기둥과 작은 문들이 뒷마루와 함께 눈에 띈다.

근래의 신축주거도 과거 전통민가 만큼 외형이 거의

같다. 건물의 느낌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지붕 모양은 평 슬라브로, 외부마감은 붉은벽돌이 주가 되고 때로는 타일마감, 수성페인트 마감이다. 도서별, 또는 건물규모별 거의 같은 모습이다. 1, 2천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것으로 여겨지는 전통민가의 모습처럼 앞으로 이러한 slab형 주택이 몇 백년, 아니 그 이상 도서지방에 정착할지 모른다.

도시민들이 새로 집을 지을 경우 70% 정도가 벽돌집에 지붕은 평지붕 스타일을 희망했다. 주민들의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첫째가 건축비 절감을 우선으로 고려했고 둘째로 어떠한 타입으로 집을 짓는 것이 모양도 좋고 살기에 편안가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단순히 내륙의 도시에서 쉽게 접하고 보아왔던 slab집이 제일 눈에 쉽게 띄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어질 도서지방 민가가 다음과 같은 모양과 구조로 건립되기를 제안한다.

첫째, 지붕모양은 평지붕을 지양하고 가급적 경사지붕 채택. 지붕 처리시 2단 정도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약간의 변화유도. 내부 실 높이는 기능에 맞추어 서비스 공간은 낮게 하고 거실 등 공공성이 있는 부분은 높게 처리.

둘째, 대부분 주택이 시멘트 벽돌로 기본구조를 하고 있다. 육지에서의 운반이나 시공기간, 단열 등도 고려하여 경량기포콘크리트 벽돌(A.L.C)등의 사용도 고려.

셋째, 외부마감은 현재 치장벽돌(붉은색)로 주로 하고 있다. 느낌이나 내구성 등 좋은 재료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성 추구하고 시공편리 등을 고려하여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이드'같은 (가로 비늘판재)재료도 선택할 수 있다. 친근감도 있고 색깔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재료가 도시보다는 농·어촌에 더욱 주변 환경과 친화적이 될 수 있다.

넷째, 주택에서 최고의 구조인 목구조는 사실상 채택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건축비는 물론이고 시공기술까지도 쉬운 일이 아니다. 목구조를 대신하여 즉, 벽돌(황토)집을 고려해 보는 것도 자연 친화적 측면에서 좋은 듯 하다. 내구성 있는 벽돌제작, 시공기술의 현대화 등만 해결되고 지붕의 간결한 목구조와 결합할 수만 있다면 최상의 도서주거가 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도서민의 주거 정체성은 무엇이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주거타입이 도서지역에 정착 되어야 되겠는가에 대한 해법을 얻기위한 논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남해 도서지역의 전통 주거문화는 17~18세기 새로운 입도조에 의해 뿌리를 내리고 그 이후 다시금 도서환경에 맞게 발전, 시대를 거치면서 고착된 것이다.

안채와 부속채가 안마당을 중앙으로 한 'ㄱ'형 배치 모습이 가옥의 기본골격으로 나타난다. 'ㄱ'형 배치로

인해 외부공간(안마당)의 개방성이 특히 돋보인다. 안채에는 ‘마래’라는 공간(실)이 건물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있다. 마래는 서남해 도서지역 전통주거에서 단연 돋보이는 도서민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마래’공간의 전승은 이 지역의 독특한 주거문화(저장+조상숭배)로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 주거요소로 사료된다.

둘째, 入島祖 이후 발전 固着된 전통 주거형태가 1970년대를 기점으로 차츰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전통적 주거환경 속에서 더 이상 현대문명의 편의성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분 변화는 기존의 전통주택에 지붕을 합석이나 스테이트로 교체하고 불편한 작은문을 큰문으로 바꾸는 작업 등이고, 큰 변화는 소위 ‘스라브집’이라고 일컫는 현대식 주택의 출현을 말한다. 큰 변화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는데 즉 木造架構式 구조에서 조적조 스라브 형식으로 바뀌면서 내부평면도 전통가옥형식에서 크게 탈피된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주거형태는 최근 내륙의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쉽게 채택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민층에서는 하나의 규범으로 이 모델을 선택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주거형태는 우리의 정서(전통, 자연환경)가 배제된, 산업화 과정에서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진 주거형태로 여겨진다.

신축주거의 평면구성은 중앙에 거실을 둔 장방형 평면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러한 구조는 거실이 홀 형식으로 동선이 복잡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셋째, 4개 섬(거금도, 조도, 창선도, 임자도)을 표본으로 하여 주거환경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내용은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인 주거 모델 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① 본채 중심의 주거관이 강해져서 상대적으로 각종 부속채(행랑채, 측간채, 가축사 등)에 대한 관심이 약해졌다. 이는 농·어업 경영의 단순화 및 가족구성의 단출 등에 기인한다. 다만 전문화 및 대규모 경영을 가진 가정에서는 넓은 창고를 주로 원했다.

② 본채의 건축면적은 20~30평형이며 침실은 3개를 원했다. 부부만 거처하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방 2개를 평소에 비워두더라도 외지에 나갔던 가족이 일년에 한 두차례 오는 명절을 대비해서다. 가옥개념을 단순 거주기능보다 가족관계의 설정을 더욱 중요시한 예다.

③ 건축구조는 붉은 벽돌로 치장을 한 조적조 주택을 원하는 가정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목조주택은 5% 정도로 극히 낮다.

‘현대식 주택 = 벽돌집’이란 인식이 강했다. 지붕은 의외로 평 스라브 지붕을 바랬는데 이는 시공상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이 그러한 타입을 원하게 했다.

④ 대체로 많은 도서민들이 넓은 마당, 넉넉한 수납 및 작업 공간, 넓은 부엌 등을 원했는데 이는 결국 도서주거가 평상시의 주거기능과 육지에 나간 가족의 방문을 대비한 복합적인 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상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넷째, 새로운 주거모델로 3타입(A: 72m², B: 108m², C: 135m². 각 타입 서비스 면적 포함), 9가지를 사례로 제시하였다. 각 타입의 공통된 설계개념은 다음과 같다.

① 서남해 도서지역 전통주거에서 찾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배려하였다. (툃마루, 퇴간, 내부수장공간 등)

②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평면을 ‘一자’형(장방형)으로 하였다. (ㄱ자, ㄴ자 등 배제) ‘一자’형 평면은 이 지역 민가의 오랜 유형이다.

③ 도서 농가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퇴간-다용도실-주방, 주방-대청-뒷마당, 외부에서 본채의 화장실 출입 등의 연결 동선을 특히 배려하였다.

④ 현대적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주방·거실 일체화, 전면 서비스 공간에 출입현관 설치, 가변성 공간계획 등)

참 고 문 헌

1. Amos Rapoport (이규목 역, 1985), 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
2. Roger M, Keesing (전경수 역, 1989), 현대문화인류학.
3. 김지민(1989), 한국 서남해 도서지역의 전통가옥·마을, 목포대 박물관 학술총서 제 17책.
4. 이해준(1990), 신안 도서지역의 역사문화적 성격, 목포대 도서문화 제 7집.
5. 김지민(1992), 19세기 한국 남서해 도서지역 민가의 유형적 체계, 한국건축역사학회 논문집 제 1집.
6. 김경옥(2000), 조선후기 서남해 도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도서정책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7. 김지민 외(2003), 역사와 공간 다도해 사람들, 경인문화사.

(接受: 2004. 7. 9)